

코로나 백신 기대효과...유동인구 20% 늘었다

광주 4대 상권 5월 유동인구·매출 분석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효과 영향으로 충장로1가 전남대 후문, 광천동 유스퀘어, 수완지구 등 광주 4대 상권 유동인구가 지난해보다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후문을 제외한 이들 상권의 대표 업종 매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내용은 광주일보가 KT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 정보서비스인 '잘나가게'를 통해 광주 4대 상권 유동인구와 매출을 비교한 결과에 답했다.

비교를 벌인 상권은 충장로1가(15만5345㎡), 전남대후문(중흥동·29만5654㎡), 광천동 유스퀘어(34만8269㎡), 수완지구대 인근(44만7221㎡) 4개 지역이다.

지난달 기준 4대 상권 월 평균 유동인구 합계는 1만372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만1493명)보다 19.4%(2229명) 증가했다.

상권별로 보면 충장로1가 월 유동인구는 지난해

전남대 후문·충장로 1가·유스퀘어·수완지구 1만3722명 충장로 1가 의류·패션업종 매출 6개월새 28.8% 뛰어올라

4092명에서 올해 5667명으로, 38.5%(1575명) 급증했다.

지난달 전남대후문 평균 유동인구는 3047명으로, 1년 전(2488명)보다 22.5%(559명) 증가했다.

유스퀘어 인근 상권 유동인구는 3541명에서 3443명으로 소폭(-2.8%) 줄었다. 수완지구 상권은 1372명에서 1565명으로, 14.1%(193명) 늘었다.

'패션의 중심지'라 불리는 충장로1가는 고객이 차츰 늘면서 매출 역시 회복되는 추세다.

지난달 기준 의류·패션업종 월 평균 매출은 2470만원으로,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1917만원)보다 28.8%(553만원) 증가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충장로 1가 유동인구는 4249명(2020년 11월)→3408명(12월)→3090명(올해 1

월)→4085명(2월)→5037명(3월)→4664명(4월)→5667명(5월)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쇼핑공간과 종합버스터미널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한 유스퀘어 인근 종합소매점 매출은 6개월 새 12.7%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23억5898만원이었던 월 평균 매출은 올해 5월 26억5877만원으로 12.7%(2억9979만원) 늘었다.

20대가 주된 유동인구인 수완지구대 인근 상권의 경우 주점 매출이 소폭(2.1%) 증가했다.

지난달 주점 평균 매출은 1965만원으로, 6개월 전(1924만원)에 비해 2.1%(41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줄면서 이 상권 주점은 6개월 새 185곳에서 178곳으로 줄었다.

4시간 이상 머무르는 상주인구와 유동인구의 주

요 연령층이 20~30대인 전남대 후문(중흥동) 치킨집 매출은 4.2% 감소했다.

전남대 후문 치킨집 평균 매출은 지난해 11월 530만원에서 6개월 뒤인 지난해에는 508만원으로, 4.2%(-22만원)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전남대 후문 유동인구는 3092명에서 3047명으로, 1.5%(-45명) 가량 줄었다.

한편 지난달 기준 4대 상권 상주인구는 충장로1가 1147명(직장인구 83.4%·거주인구 16.6%), 전남대 후문 2812명(직장 56.4%·거주 43.6%), 유스퀘어 3125명(직장 53.3%·거주 46.7%), 수완지구 2513명(직장 52.5%·거주 47.5%) 등으로 집계됐다.

KT는 업종별·지역별로 매출 상위 5개 동(洞)의 평균 월 매출액과 전담비 추이를 매달 공개하고 있다.

매출 자료는 카드사 매출데이터 및 KT 상권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43개 업종에 대한 평균 매출(법정동 기준)을 추정해 도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24.64 (+8.46)
↑ 코스닥	987.77 (+8.98)
↑ 금리(국고채 3년)	1.282 (+0.145)
↑ 환율(USD)	1115.80 (+0.40)

조달청 지정 혁신제품전 16~17일 광주 DJ센터

탁월한 기술력을 지닌 조달청 지정 혁신제품이 오는 16~17일 광주서 소개된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이 기간 동안 광주시 서구 치평동 감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혁신제품 호남권 순회 전시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전시는 충청·호남·영남 3개 권역에서 잇따라 열린다.

혁신제품은 기술 혁신성과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지정해 정부·공공기관이 첫 구매자가 되는 정책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 전시회에는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스마트 전자 등 기술력을 지닌 36개 업체가 참여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전시회는 뛰어난 혁신제품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게 직접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공공기관과 혁신조달기업을 연계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보 상담예약제 호응 도입 후 2만5000명 이용

광주신보보증재단은 지난해 2월 보증상담예약제를 도입한 뒤 약 2만5000명의 소상공인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증상담예약제는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1인 사업자 등의 상담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신보 홈페이지에서 상담 받고 싶은 날짜와 시간을 지정한 뒤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광주신보는 이달 7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자문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서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경영자문단은 변호사, 세무사 등 법률·노무·세무 부문 전문가로 구성됐다. 광주신보에서 보증을 이용하고 있거나 보증 신청 중인 업체라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자문위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거나 전화 상담으로 진행해도 된다.

경영자문을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광주신보보증재단 6개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문승욱(가운데) 장관과 정승일(왼쪽 네번째) 한전 사장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기업 간담회' 참석자들이 10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회의를 앞두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력 기업 '2050 탄소중립 대응 방안' 모색

문승욱 장관, 나주혁신도시 찾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한국전력 나주 본사를 찾아 전력그룹사와 '2050 탄소중립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오전 열린 간담회에는 문 장관과 정승일 한전 사장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6개사 사장과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전력그룹사는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공동 특화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개별 추진하는 현안도 공유했다.

전력 공기업 사장들은 탄소중립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를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수

소터빈 발전, 수소생산 플랜트 구축 등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력 공기업도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전력 공기업 간담회에 이어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를 찾아 전력거래소, 한전, 한전KPS 등 전력 유관 기관장들과 여름철 전력수급 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해선 에너지 분야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과 전력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력 공기업들이 더욱 과감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대규모 해상풍력처럼 리스크가 높은 사업을 협업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바쁜 농심' 아는 농협

전남본부, 광양·무안·함평 등서 일손 돕기 잇따라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임직원들이 잇따라 수확기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농협 광양시지부와 지역농협 직원 50여 명은 광양시 진상면, 다압면, 진월면 매실 농가를 찾아 수확을 도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촌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막혀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봉사 참가자들은 매실 수확과 선별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전남농협은 무안·함평 양파, 표고버섯, 아열대 농산물, 멜론 수확 일손돕기와 새싹삼 식재작업 등 인력난 해결을 위해 일손 돕기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협 전남본부 임직원들이 광양 매실 농가를 찾아 수확 등 일손을 도왔다. <전남농협 제공>

농촌인력 문제와 경기위축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부진 등 농촌상황이 매우 힘들다"며 "전남농협은 농업 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의 인력지원과 판로개척을 통해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첨단산단 사회적 가치 실현 커뮤니티 출범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14개 기관·단체는 10일 '광주첨단산단 사회적 가치 실현 커뮤니티'를 출범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커뮤니티는 공동체 상생에 대한 공공기관과 기업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입주기업인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사회적 가치 서비스 제

공을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으로, 지난 5월 기업인의 통행이 잦은 산단 도로 주변 풀베기와 쓰레기 줍기 등 정화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 사회적 약자 지원활동과 자원순환활동, 캠페인 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창립40주년 및 525새마을금고 날 이벤트!!

대 상 대광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 회원

혜 택 - 하나, 5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고급점시세트
- 둘, 3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밀폐용기 세트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매장 제외

내 용 MG체크카드 이용자

신 청 MG체크카드 사용영수증 대광새마을금고 방문제출 <회원별 1회 한함(중복지급불가)>
※ 선착순 선물 지급(물품소진시 조기종료)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